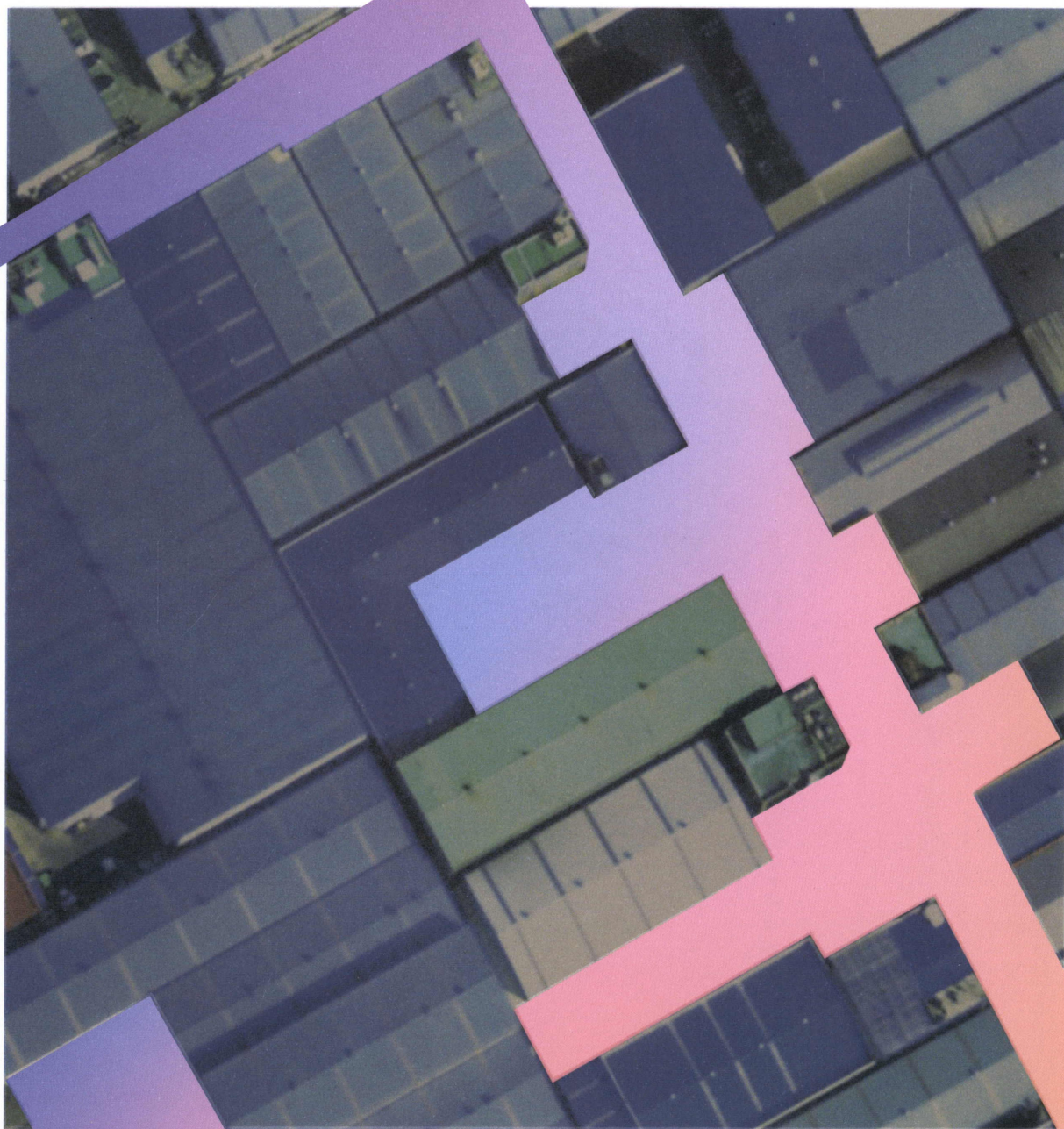


공존(共存)

당신과 내가 사는 곳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
〈2019 미래유물전 in 안산〉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

〈2019 미래유물전 in 안산〉

목차

1. 발간사

2. 프롤로그 prologue

3. 미래유물전 in 안산

- S1. 우리에게 안산은 어떤 의미 인가?
- S2. 공단과 섬 사이, 우리는 안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 S3. 당신과 내가 사는 곳, 우리가 꿈꾸는 안산

4. 에필로그 epilogue

5. 도움 주신 분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미래유물전>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유물로 남길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된 전시입니다. 그동안 <미래유물전>에서는 지방문화원과 함께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나아가 지역의 미래를 그려왔습니다.

올해는 안산문화원과 함께 산업단지와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안산의 ‘오늘’을 전시로 담아냈습니다. 반월공단, 시화공단과 같이 안산의 산업화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고, 바다와 인접한 천혜의 자연환경은 주민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산에서 본 것은 경제발전과 자연보호의 대립이 아닌,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공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산의 오늘이 조화롭고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전시에는 안산을 걱정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 또한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려 노력하는 안산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안산의 오늘이 모여 안산의 내일이, 안산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미래유물전>은 끊임없이 지역의 미래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전시입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유물로 남길 것인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앞으로도 31개 시,군 문화원과 함께 보물처럼 숨겨진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미래유물전>이 5회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김봉식 원장님을 비롯한 안산문화원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 상 덕

축사

<미래유물전>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지역문화원이 공동기획하여 지역의 생활 문화공동체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동시에 지역 내 구성원들과 함께 현재의 도시를 바라보고,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먼저 어제의 물건이 내일의 유물이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변화가 빠른 지금 이 시점에 오늘의 안산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를 함께 이끌어 가는 안산도시공사(안산어촌 민속박물관)와 안산문화재단(단원미술관)이 공동기획하여, 안산의 현재를 기록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유물전 in 안산 (공존-당신과 내가 사는 곳)>전시는 전형적인 전통마을에서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변화한 안산의 모습을 되짚어보고, 산업도시이면서 자연과 생태의 도시로써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는 안산의 현재를 기록한 전시입니다.

전시의 형태로 기록된 안산의 오늘을 바라보고, 현재의 정체성을 이해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지역민의 삶과 문화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안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의문을 던지고, 그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안산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내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유물전을 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께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안산문화원장 김 봉 식

안산문화원이 주관하는 <미래유물전 in 안산>을 안산도시공사가 함께 준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존-당신과 내가 사는 곳’이라는 전시 주제처럼 우리는 안산의 역사를 함께 겪어왔으며, 앞으로 안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안산시’하면 떠오르는 도시 이미지는 반월공단과 원곡동 다문화거리 등으로 대표되지만, 현재 안산 스마트 허브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부도가 가진 천혜자연경관, 사통팔달의 교통 등 안산이 가진 매력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전적이고 빛날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안산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함께 모여서 공통의 주제를 함께 고민 하여 기획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양한 형태로 그려내고 그러한 도시의 이미지와 가치를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업과 환경, 사람과 문화가 안산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시를 개최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회장님과 안산문화원 김봉식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표 양 근 서

지금의 안산을 조명하는 전시에 안산문화재단이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당신과 내가 사는 이곳, 안산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보다 매우 훌륭한 도시입니다. 과거 풍요로운 자연과 풍족한 자원을 기반으로 단원 김홍도와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문예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991년 이후 단원의 도시로 명명 받아 안산은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자 노력해왔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문화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은 천년이라는 긴 역사를 거쳐 오면서 넓은 평야와 바다가 인접한 지리적 요건으로 전통적인 민속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이었지만 1970년대 들어 반월공단 건설로 인해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공업 도시 안산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세대와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삶과 문화에 많은 변화를 겪으며 지금의 안산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현재, 공단(산업단지) 그리고 지속의 상징인 섬과 생태, 이 상반된 두 가지 이미지의 공존에 대해 현대 작가들의 작품으로 안산의 풍경을 재현해봤습니다.

모든 것들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안산이 가지고 있는 공단과 섬, 그 안에 숨어있는 무한한 긍정과 다채로운 희망을 다시금 재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 대표 백 정 희

여 백

p.8-10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의 기록물을 토대로 역사를 그려냈고, 기록의 빈 공간은 기록 간의 연계성에 의해 유추되기도 하고 또는 기억에 의존한 구술 자료들을 모아 채워졌다. 기존의 지역사 연구는 이렇듯 과거에 집중했고, 이렇게 연구된 역사적 사료들은 지역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꾸준한 지역사 연구실적 덕분에 문화원 서고에는 사료와 이를 토대로 발간한 기록물들이 성실히 쌓여 갔고, 수장고에는 역사시대의 유물 위로 젊은 세대들은 겪어보지 못한 기성세대들의 손때 묻은 생활유물이 차곡차곡 쌓여왔다. 언젠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전시장 한편에서 그 용도와 시기가 표기되어 전시되고 있을 것이다. 그 언젠가라는 시기는 곧 빠르게 올 것이다. 어제의 물건이 내일이 유물이 된다고 한들, 이상하지 않을 만큼 빠르게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일을 위해 무엇을 남겨야 할까. 우리는 우리가 수없이 그려내고 연구했던 사료들을 선조들이 남겨주었듯 시대 흐름의 속도에 발맞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록의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기록하고 연구할 것, 정리하고 보여줄 것, 남기고 보존할 것.’

우리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작업을 선조들의 기록에 의존했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의 지금을 지류, 영상, 전시 등 다양한 형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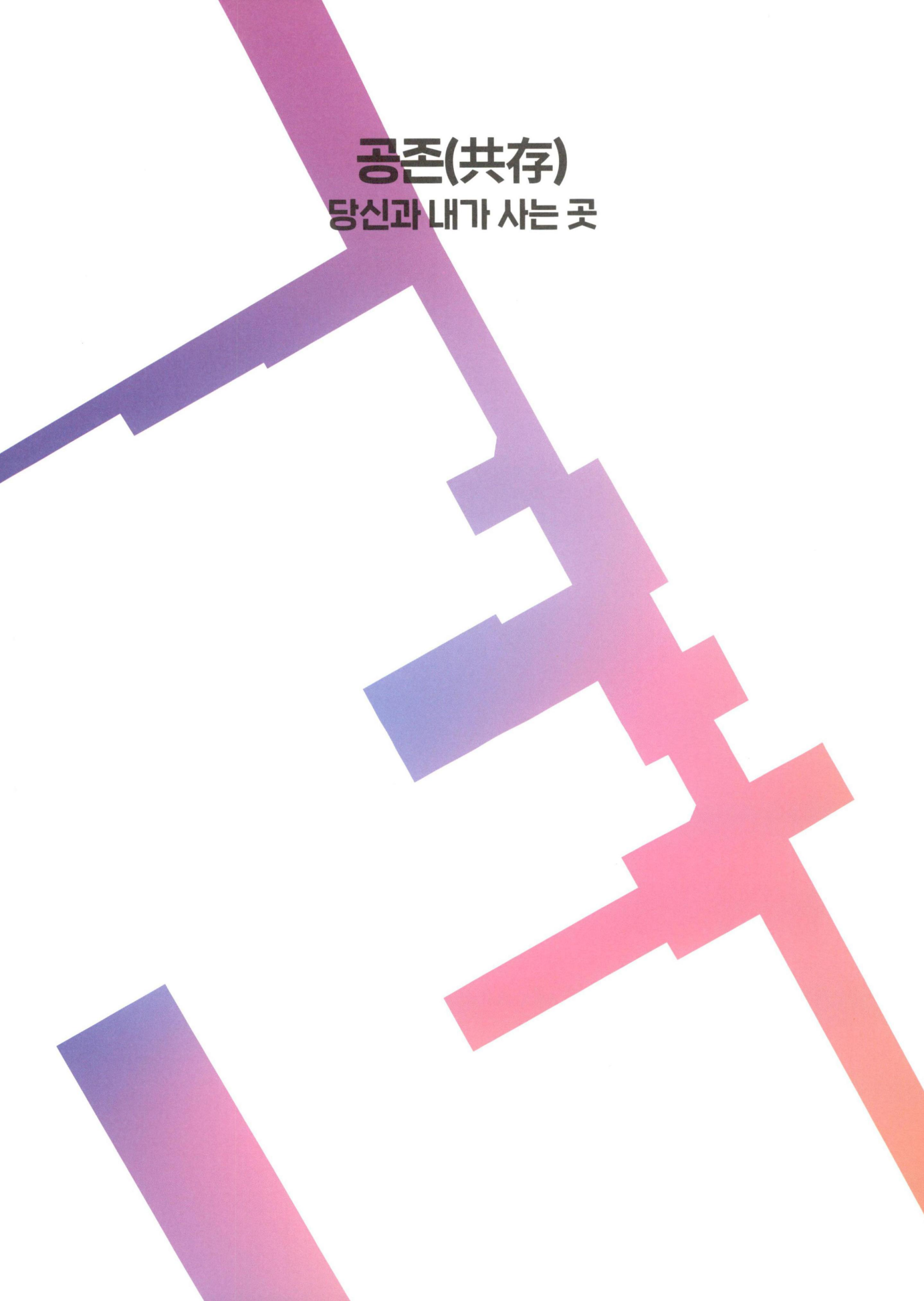
오늘의 안산은 반농반어가 가능한 지리적 요건 덕분에 풍요롭고 순후한 민속 문화를 형성하며 천년이라는 긴 역사를 거쳐 왔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던 안산 지역은 1970년대 들어 반월·시화공단 건설로 인해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공업 도시로 변하게 된다. 마을에서 도시로 급격히 변화하며, 외부에서 유입된 다양한 세대와 국적의 사람들로 인해 삶과 문화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고, 지금 안산 지역의 풍경을 만들어 냈다.

전시를 통해 하나가 아닌 다채로운 문화들이 뒤섞여 있는 안산을 정리하고 내일을 위한 아카이브를 구성하여, 동시대 지역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자 한다. 전시는 현재 안산의 대표적인 이미지라 할 수 있는 ‘공단(산업단지)과 섬·생태’, 이 상반된 이미지의 공존에 대한 기록이다.

여 백

공존(共存)

당신과 내가 사는 곳



S3. 우리가 꿈꾸는 안산
섬 · 생태

당신과 내가 사는 곳
농업 · 어업 · 산업

미래유물전 in 안산
공존(共存)

S2. 공단과 섬사이
우리는 안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공단 · 다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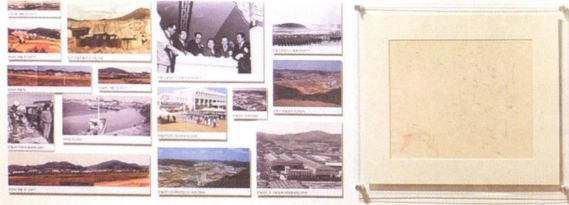
S1. 우리에게 안산은
어떤 의미인가?
도시 · 사람

I 태동胎動

1960년

반농반어후농半漁

1977 반월신공업도시 건설 기공식
1979 반월공업단지 기업 입주 시작
1987 시화방조제 공사 착공



II 성장成長

1980년

1986 연산시 승격(127,231명)
1986 공단 입주업체 1,000호 초과
1987 시화공업단지 기공식
1992 연산시 산도시개발지원사업소 개소
1994 시화호 모험의 시작
1994 대부도 지역 연산시 편입
1997 시화방조제 완공
1998 시화호의 담수화 포기(배수검문 상시개방)



안산은 반농반어의 전통마을에서 1977년 반월신공업도시 조성 이후 농·어업의 비율은 감소하고, 기계, 화학, 섬유, 금속 업종 등 제조업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1986년 안산시 승격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부품 소재 산업이 성장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전기·전자 업종으로 주류가 변하였다. 이러한 성장 속에서 1987년 시작된 시화방조제 공사는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후 시화호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시행하여 다시 시화호는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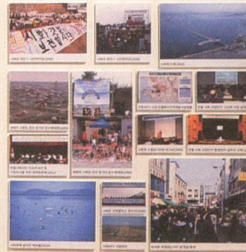
안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부품 소재 단지이자 중추적인 공업단지로 발전하였고, 국내 최대의 녹지율을 자랑하며, 자연과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III 변화變化

2000년

현재

- 2000 사회호 및 인천 연안 특별관리해역 시험해역 지정 (해수호 관리 전환)
- 2004 사회호조력발전소 착공
- 2007 반월·사회 MTV 산업 단지 추진
- 2008 외국인주민센터 개관 (한국 최초)
- 2009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 2011 사회호조력발전소 준공
- 2014 안산 스마트워브 혁신·재생 사업지구 지정



인구수

716,005 명 (2019년 기준)
127,231 명 (1986년 시승격 당시)

반월·사회공단 가동업체 수

10,438 개 (2019년 기준)
1,000 개 초과 (1986년 기준)
311 개 입주업체 결정, 60개 업체 가동
(1979년 반월공단산업지구 결성당시)

외국인 주민현황

86,870 명 (2019년 기준)
29,673 명 (2007년 기준)
329 명 (1992년 첫 통계자료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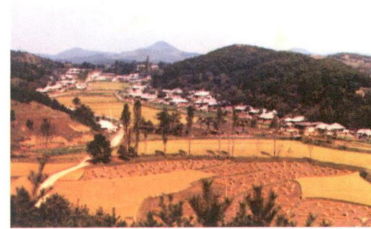
I. 태동(胎動) 1960 ~ 1979

반농반어 半農半漁

- 1976. 9. 21 신공업도시 건설 후보지로 반월지구 결정·재가
- 1976. 10. 2 기본 지가 고시 및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 공개발표
- 1976. 12. 4 도시계획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고시(건설부고시 제192호)
- 1976. 12. 31 반월도시개발지원사업소 조례 공포
- 1977. 1. 11 경기도 반월도시개발지원사업소 설치(군자면 거모리)
- 1977. 3. 3 반월신공업도시 건설 기공식 거행
- 1977. 3. 28 반월신공업도시 기본계획 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53호)
개발과정
 - 1단계 : 기본계획, 개발구역 설정 지가고시,
용지 보상 및 이주민 대책은 건설부와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자금조달은 재무부에서 맡아 진행
 - 2단계 : 환지 조성과 하부시설에 대한 계획
 - 3단계 : 주택 및 교육시설의 건설
- 1977. 4. 22 특수개발지역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73호)
- 1977. 6. 18 반월특수지역개발 기본계획 고시(건설부고시 제114호)
- 1977. 11. 22 반월공업단지관리공단 설치
- 1978. 6. 18 반월특수지역개발 기본계획 고시
- 1978. 10 반월신도시개발지원사업소 개설
- 1979. 8. 10 경기도 조례에 따라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설치
(시흥군 수암면의 고잔·부곡·와·월피·양상·성포리와 시흥군
군자면의 원곡·선부·원사·신길·성곡·목내·초지·반월면의
일·아·사·본오·팔곡2리가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에 편입)



고잔1동 개발 전(1977)



목내리 개발 전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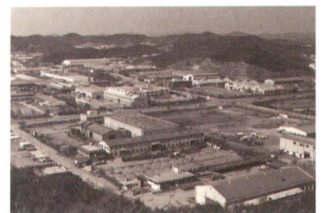
원곡리 개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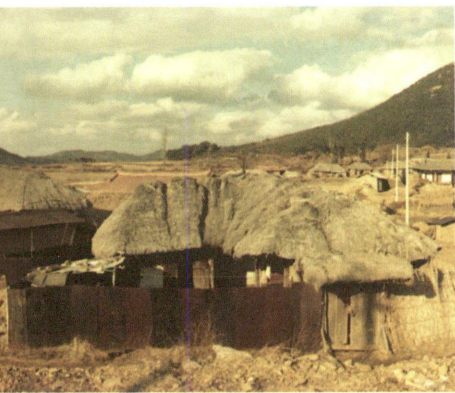
반월4리 어촌계 물량장(1981)



초지리 개발 전 (1997)



반월공단 전경(1985)



안산 전통마을의 초가집 모습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 기공식(1977)



신길4리 개발 전(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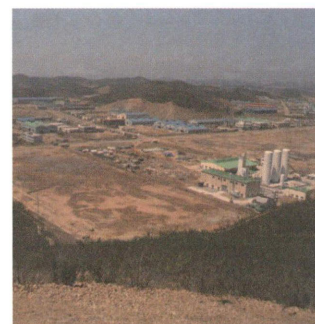
반월신공업도시 발파식(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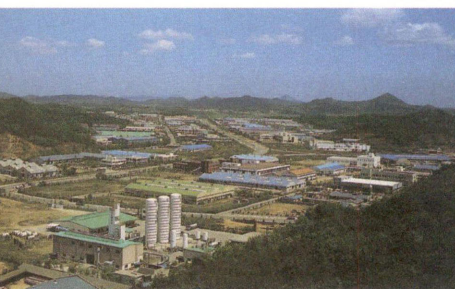
사리포구(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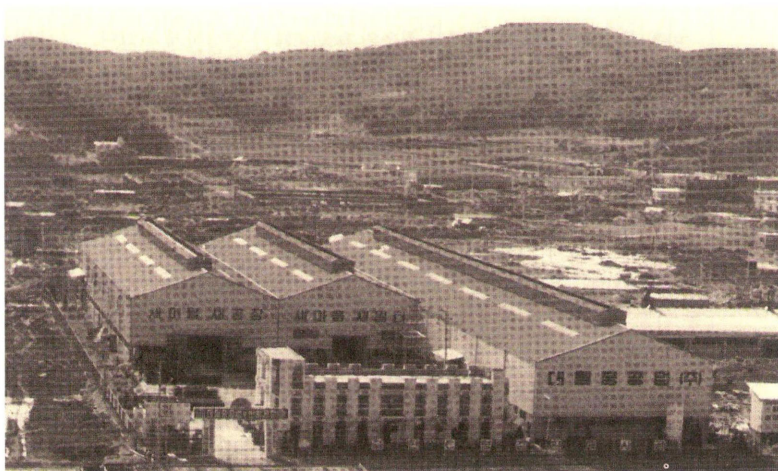
반월공업공단 청사준공식(1979)



초창기 반월공단 조성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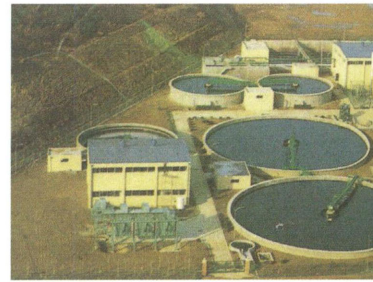
반월공단1차계획공업단지 완료(1984)



반월공단 첫 가동업체 (대일중공업,1979)

II. 성장(成長) 1980 ~ 1999

- 1983. 6. 11 반월특수지역개발 기본계획 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184호)
- 1985. 9. 21 반월신도시 기본계획 재정비 결정고시(건설부)
- 1986. 1. 1 안산시 승격(127,231명)
(안산시 조례 제90호에 따라 수암지소, 군자지소,
반월지소는 반월동, 수암동, 중앙동, 군자동, 원곡동, 원초동,
선부동으로 변경)
- 1986. 공단 입주업체 1,000호 초과
- 1987.4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와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를 잇는 시화방조제 공사 착공
- 1991. 고잔들 개발(한국수자원공사)시화지구, 대부도 개발과 함께
고잔지구를 안산의 신중심지로 형성
- 1992.6.1 안산시 신도시개발지원사업소 개소
- 1994.1 시화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완공
시화호의 오염 시작
- 1994.12.26 대부도 지역 안산시 행정구역 편입
(시·군 간의 경계지역 조정 주민투표 결과 51% 선택)
- 1997.1 시화방조제 완공
- 1996.7 시화호 수질개선종합대책 마련
- 1997. 시화호 해수유통 시험적 운영
- 1998.9 안산 테크노파크 설립



염색단지공동폐수처리장(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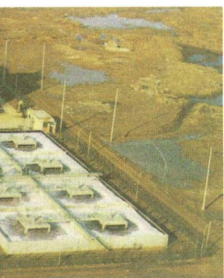
안산시 개청(1986)



시화호 오염 (당시폐사조개류)



시화호 공청회(1996)



염색단지공동폐수처리장 준공식(1983)



아파트 재개발(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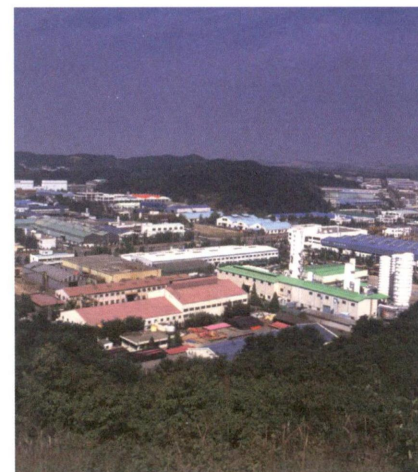
안산선 전철건설현장(1987)



안산정수장(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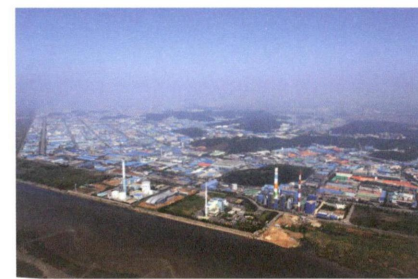
고잔신도시 개발이전 모습(1995)



공단전경(1995)



시화호 조감도(1999)



반월공단 전경(2007)

III. 변화(變化) 2000 ~ 현재

- 2000. 시화호 및 인천 연안 특별관리해역 시험해역 지정
(해수호 관리 전환)
- 2001.2 시화호 해수유통 및 담수계획 포기
- 2002.11.1. 상록구와 단원구 설치(1출장소, 2구청, 21동)
- 2003.5 안산테크노파크에서 경기테크노파크로 변경
- 2004. 시화호 조력발전소 착공
- 2006. 생태산업단지 구축산업 진행
- 2007. 반월·시화 MTV 산업동북아시아대를 겨냥하여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첨단산업용지를 공급하고 시화호의 수질과 공단의
대기를 개선하여 환경친화적인 첨단 복합도시의 개발추진
- 2008.03 외국인주민센터 개관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전담부서 신설)
- 2009. 원곡동 일대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 2011. 시화호 조력발전소 준공
- 2014. 안산 스마트허브 혁신·재생 사업지구 지정



시화호 꺼안기 시민한마당(2000)



생명의 시화호 전국
장거리 핀수영대회(2005)



반월시화산단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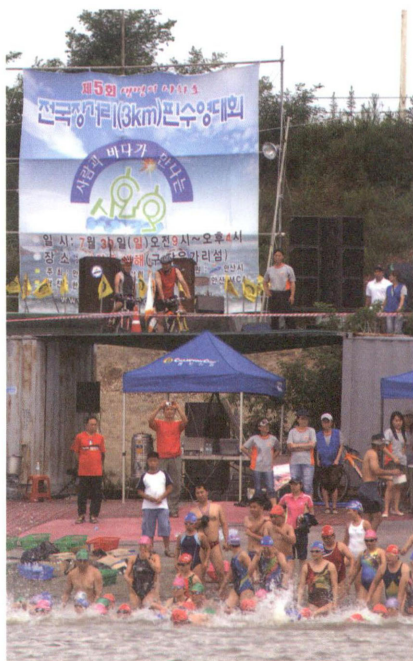
시화호에 날아든 백로들(2010)



시화호 꺼안기 시민한마당(2000)



시화방조제(2002)



생명의 시화호 전국 장거리 핀수영대회(2006)



시화 MTV 사업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현황



반월 시화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심포지엄



시화호 수질모니터링 워크샵(2006)



반월·시화 산업단지 환경관리 실무자 교육(2010)



시화호 조력발전소 정지식(2009)



시화MTV 사업현장



원곡동 국경없는거리 설 전날 풍경



씨앗망태 안산향토사박물관 소장



망태기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소장

반농반어 풍요로운 삶

안산 지역은 비옥한 평지가 많아 농업을 주생업으로 생활하고, 갯벌에 나가 바지락이나 굴 등을 채취하여 부업으로 어업소득을 올리는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대부도 섬마을 가정집 창고를 살펴보면 농업도구와 어업도구가 함께 놓여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생업환경 때문이다. 안산지역의 민속자료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형태의 소도구들이 각각 농업 어업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던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례로 소등굼개를 외양간 소를 돌볼 때 쓴 것도 있지만, 바닷가에서 바위에 붙은 해초들을 굼어모을 때 쓰는 도구로 변형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집집마다 가장 흔히 발견되는 호미는 발호미, 논호미, 갯벌호미 등등 그 쓰임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소등굍개 안산향토사박물관 소장
해초굍개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소장



호미 안산향토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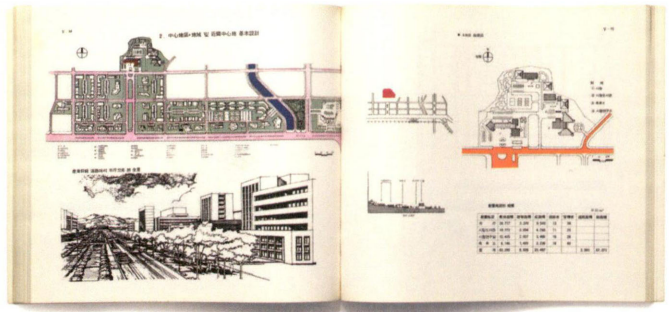


호미 안산어촌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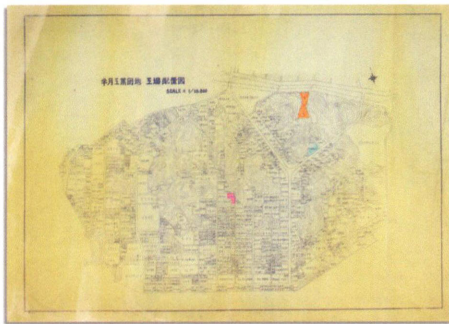
갈퀴 / 조새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소장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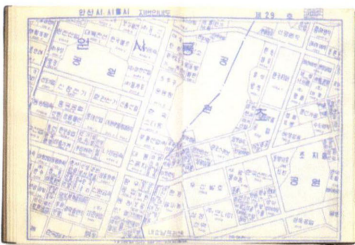
반월신공업도시 도시설계도서

당시 도시설계자 '정무용'이 직접 기증한 도서로,
건설부와 산업기지 개발공사에서 발간한 반월공단 및
안산시 설계계획도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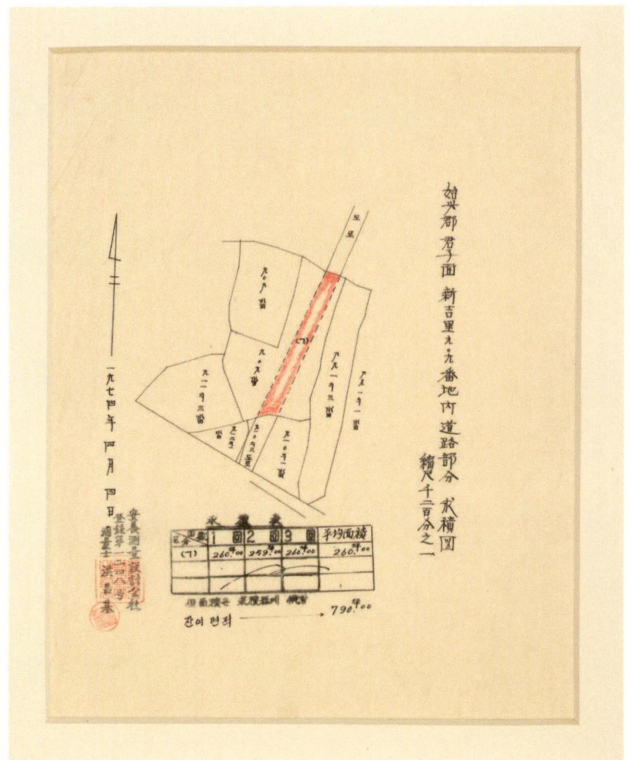


반월공업단지 공장배치도

반월공업단지의 구획과
입주 기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 지도이다.



안산시 시흥시 지번 안내도



설계공사 측량도

1970년대 반월공단 조성과 안산시 승격 이전에
작성된 군자면 신길리의 측량도면이다.



조선무약 의약품 및 생활자료



서울우유 제품 및 기념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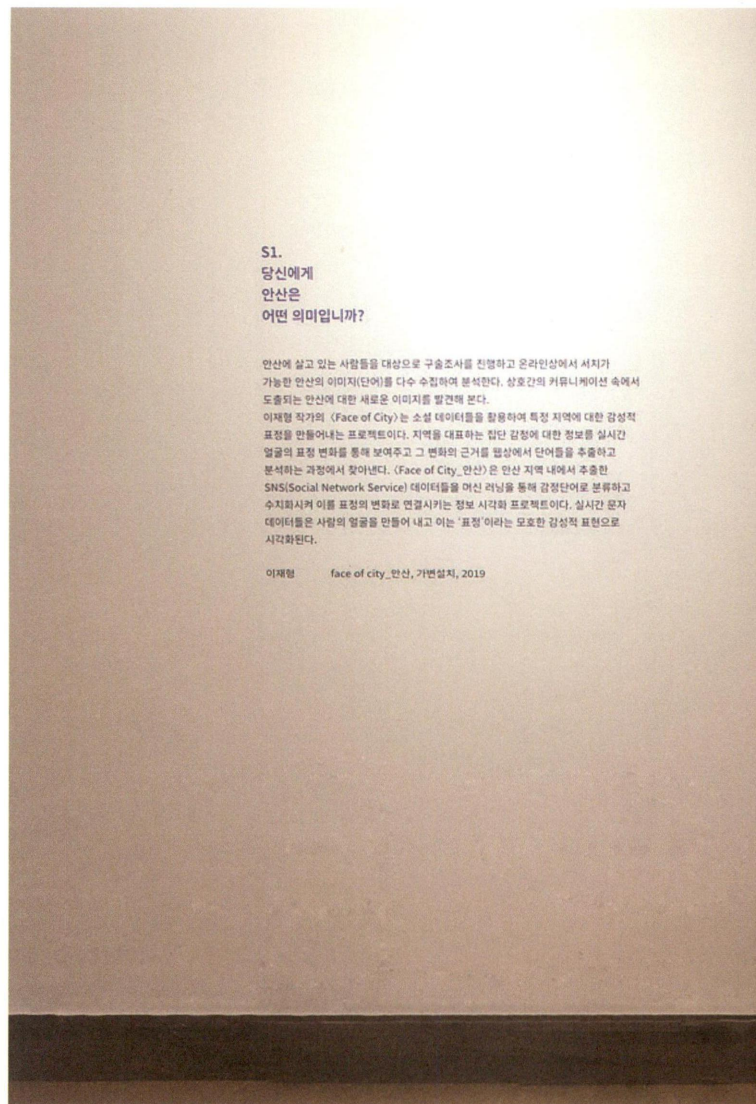
파크 가볼 만 하죠. <https://t.co/eYJdZM9X1R> Re
 권선구) 남경필(경기 수원시 팔달구) 박순자(경기 안산
 (경기 안양시 동안 을)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
 2019년에 개통할 수인선 전철이 진입할 때 한번 더
 언제 바껴 古古古古古 안산|안산의 중요지점 중 하나
 지. 신길온천|온천탐사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발
 시는 1993년에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했대요. Rememb
 박보환(경기 화성시 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용진
 근(대구광역시 달서구 갑) 박준선(경기 용인시 기흥구
 에 그 터널을 지나면 시골이 나와요. 여기서 한 정거장
 접근성이 좋은 공유지가 몇 안 되기 때문에 온천을
 말 그대로 발견신고만 받아들였을 뿐 안산시는 이미 산
 일대의 개발권을 최초발견자인 개인(단체)에 주려는
 f0oiXGJqL espriter NEWS|[TBS 기상정보][강릉강
 시, 화성시, 인천광역시 용진군, 평택시, 당진시, 태안군, 사
 하는 사람들|경북 구미, 경기도 안산시쪽 과외 선생
 서도 민요 경창대회 <https://t.co/6B4PZvKvNo> 산
 이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별다른 뒷말 없이 바뀐 초지역
 사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발견자는 이에 반발하여 수
 현 신고를 수리했대요. 1h3m12s|@dev_mordi 대부도
 하고 들어가야 해서 모두에게 멀어(속닥) 하지만 예쁘네
 안산시는 2018년에 개통한 서해선 전철과 2019년에 개
 인선 연기됐다는데ㅋㅋㅋㅋ 나 이름 도대체 언제 바껴
 즉 군포시와 안산시의 경계에 바로 붙어 있고, 거리
 찰 거리라는 건 함정(...). 키르시아@254/700|명절

우리에게
 안산은
 어떤 의미인가?

단원구 울)이화수(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김학용(경
신길온천|저의 개명에 대해서 안산시는 2018년에 개명
하겠다고 밝혔대요. 근데 수인선 연기됐다는데ㅋㅋㅋㅋ
안산시 시내버스중에 나를 안 지나는 버스는 몇 없
는 이에 반발하여 수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FTA Bot|한미FTA 찬성의원 명단 [06] 박민식(부산
박준자(경기 안산시 단원구 울) 박영아(서울특별시
수리산|저에서 대야미역 가는 터널이 산본 신도시의
더 가면 안산시가 나와요. (반월역) 신길온천|안산
한 여러 방향의 개발을 검토하는 듯 해요. 신길온
단과 주거단지가 주변에 세워진 이 일대에 토지용도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죠. SHAYU|간다 |대부도!!
변경발표안내] 기상청은 오늘(7일), 오후 7시 25분
시,보령시,홍성군 지역에 강풍경보를 발표하였습니다.
합니다!! #과외선생님 모집 아시아문에일보|안산시
온천|아직까지도 이곳 일대 주민은 안산시에 온천 개발
달리 저의 명칭 변경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예요.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안산시는
에 고양이🐾기@cherryfox_sad @grey_mosaic 대부
여기서 이박삼일 녹아있는다든지 신길온천|저의
수인선 전철이 진입할 때 한번 더 검토하겠다고 밝
ㅎㅎㅎ 수리산|송정지구는 군포시의 최남단이라는 군
로는 대야미역이 가장 가깝대요. 그런데 대야미역까지
속도로처럼 차들이 기어다녀. 안산역 부근 허구한날 이

안산을 대표하는 이미지 또는 정의하는 이미지들은 다소 일관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타 지역에서 바라 본 안산과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안산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술조사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쉽게 서치가 가능한 안산의 이미지(단어)를 다수 수집하여 분석한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도출되는 안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해 본다.



S1. 당신에게 안산은 어떤 의미입니까?

안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술조사를 진행하고 온라인상에서 세치가 가능한 안산의 이미지(단어)를 다수 수집하여 분석한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도출되는 안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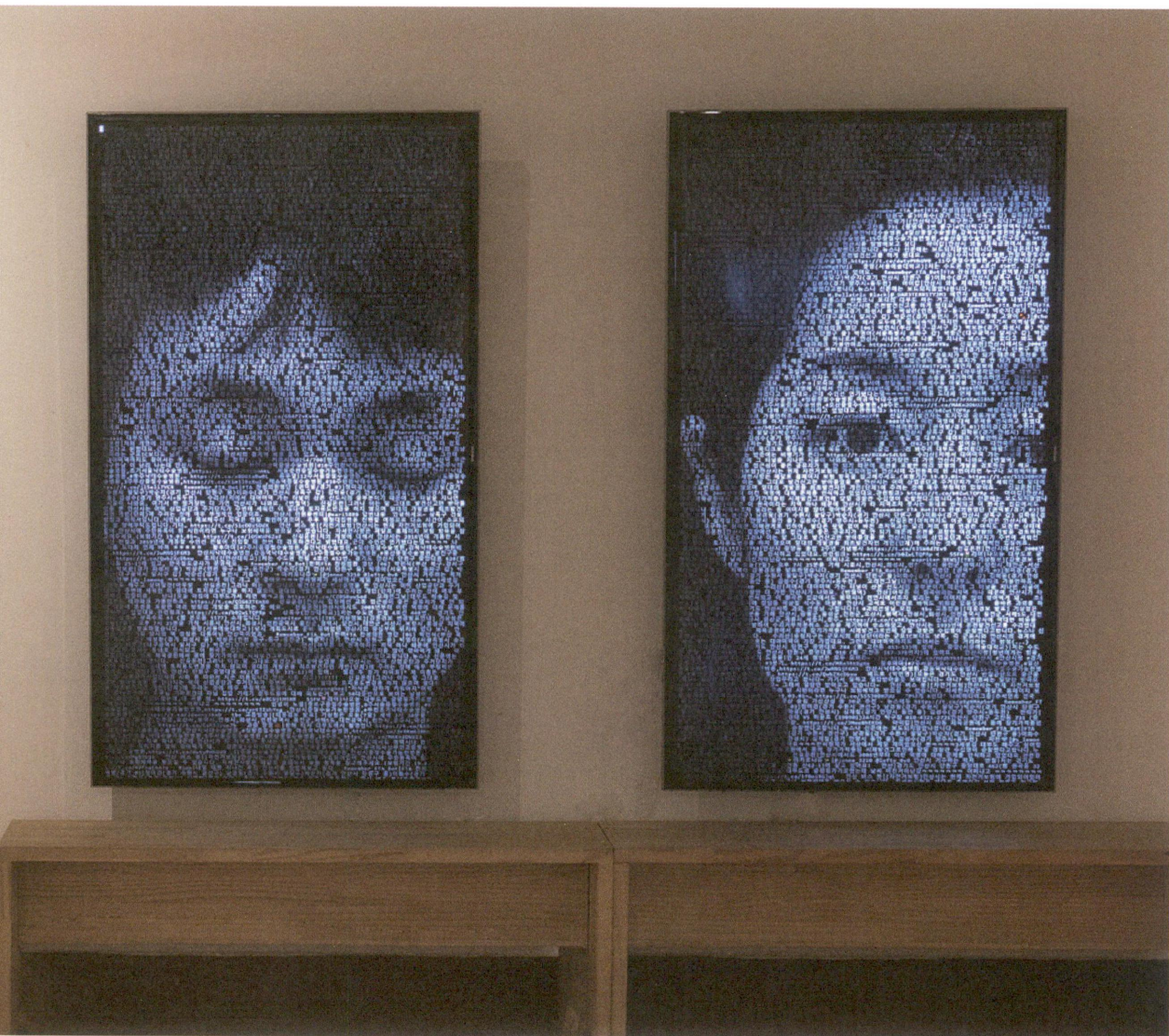
이재형 작가의 <Face of City>는 소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감성적 표정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집단 감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얼굴의 표정 변화를 통해 보여주고 그 변화의 근거를 웹상에서 단어들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찾아낸다. <Face of City_안산>은 안산 지역 내에서 추출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데이터들을 머신 러닝을 통해 감정단어로 분류하고 수치화시켜 이를 표정의 변화로 연결시키는 정보 시각화 프로젝트이다. 실시간 문자 데이터들은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 내고 이는 '표정'이라는 모호한 감성적 표현으로 시각화된다.

이재형 face of city_안산, 가변설치, 2019

이재형 작가의 <Face of City>소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감성적 표정을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집단 감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얼굴의 표정 변화를 통해 보여준다. 그 변화의 근거는 웹상에서 단어들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찾아낸다.

<Face of City_안산>은 안산 지역 내에서 추출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데이터를 머신 러닝을 통해 감정 단어로 분류하고 수치화시켜 이를 표정의 변화로 연결하는 정보 시각화 프로젝트이다. 실시간 문자 데이터들은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 내고, 이는 '표정'이라는 모호한 감성적 표현으로 시각화된다.

참여 작가 이재형의 미디어 작업을 통해 sns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젊은 세대들은 안산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지 단편적인 이미지들을 모아보고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도출되는 안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해 본다.



Face of City_안산, 가변설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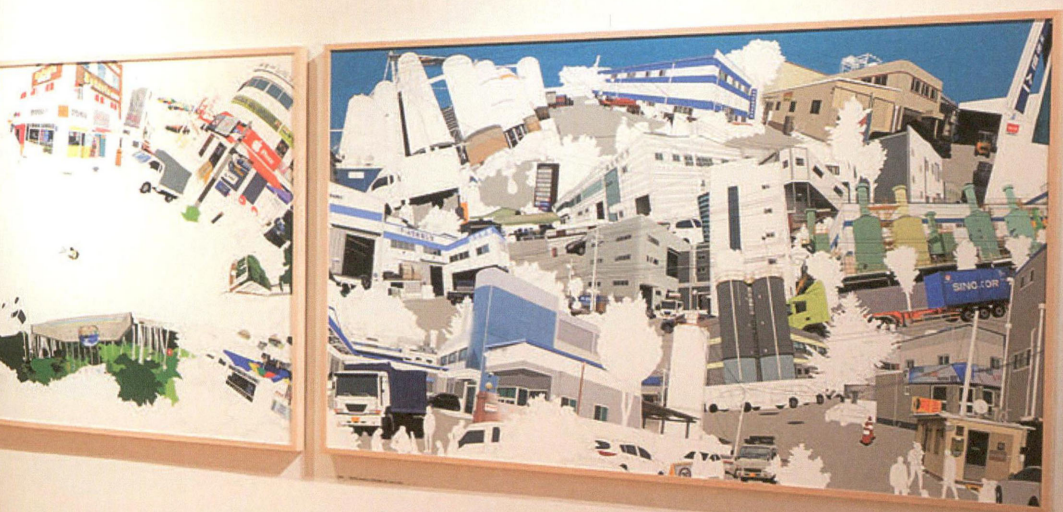
여 백

p.32-33



우리는 안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안산은 安山이라는 지명을 통해 안산의 자연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안산은 주변의 산들이 높지 않은 편안한 산세를 가졌고, 낮은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경기도 남서부 해안가에 위치하여 과거에는 중국과의 무역이 가능한 교통의 요지였으며, 대부도와 풍도라는 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 녹지율이 가장 높고 지역 내에 녹지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안산은 계획도시로 공장지와 주거지 모두 도로가 바둑판 모양으로 잘 짜여 있으며, 서울·수원 등 대도시와도 잘 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다.



안산은 서울시의 공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1979년 반월공단이 가동되기 시작한 이후 이곳에는 염색·금속·섬유·종이 등 1,000여 개 이상의 공해 공장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게 공단이 형성됐고 섬과 사이에 두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반월신공업도시 조성 이후, 부품 소재 산업이 성장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기계, 화학 섬유, 금속 업종 등 제조업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1986년 안산시 승격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부품 소재 산업이 성장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전기 전자 업종으로 주류가 변하였다. 이러한 성장 속에서 1987년 시작된 시화방조제 공사는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가 야기되었고,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증가로 인하여 주변 공장의 하수 및 생활하수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시화호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시행하였고, 시화호는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했다.

안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부품 소재 단지이자 중추적인 공업단지로 발전하였고, 국내 최대의 녹지율을 자랑하며, 자연과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전통마을에서 반월공단이 형성되고 반월 스마트 허브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쌓인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기록하고자 한다.

김 승 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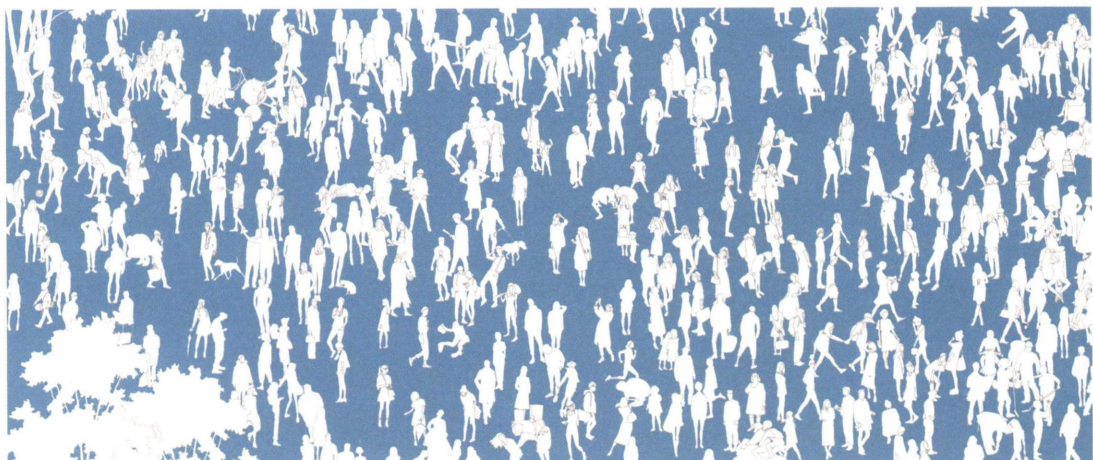
작가 김승택은 ‘오해와 편견’이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었던 안산과 안산의 다문화 인구들의 이미지에 관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사건 사고로 인해 한국인들은 외국인 근로자 혹은 이주 외국인들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로 오해하고 편견을 갖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오해와 부정적인 시선으로 얼룩져 버렸다. 이에 김승택 작가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주 외국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길 바라본다.



살_lived here all life, 디지털 프린트, 120X200cm, 2019



콤비나트_kombinat, 디지털 프린트, 120X200cm, 2019



다른 사람들_other people, 디지털 프린트, 100X240cm, 2019



다른 사람들_other people, 디지털 프린트, 100X240cm, 2019



다른 사람들_other people, 디지털 프린트, 100X240cm, 2019



편견과 오해 그리고 변화, 싱글 채널, 00:10:20, 2019

#1. 오해와 편견 그리고 변화(인터뷰 채록)

원진아(베트남 호치민)

베트남 이름(누에티녹하인)

안산 거주 20년

문화세상 고리 베트남 문화강사

한국에 온지 20년 됐어요.

고향은 호치민시예요.

호치민시는 베트남에 경제 심장이에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왜 왔냐구요?

그때 베트남에 있을 때 한국 큰 회사가 있고

그곳에 작은 공장이 있는데 일을 하고 있다가 뽑혀서

한국에 2년 동안 일 할 기회가 생겼고

돈 벌어서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일하는 동안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은 안산시에 살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1998년도에 처음 왔어요.

경제가 어려워서, 김대중 대통령이 선출되었을 때

국민한테 금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자신이 소유하던 금을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잖아요.

사거리나 삼거리 지나갈 때 거리에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이던 가운데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면서

반지도 빼고 목걸이도 빼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촬영할 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진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이후에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생활력하고 음...정신!

정신이 한국 사람....

6.25전쟁이 1953년에 끝났잖아요.

얼마 지나지도 않아 베트남보다 발전하는 모습에

놀라웠어요.
 한국 대중교통이 편리하지만
 그런데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버스에 앉을 때마다
 앉으세요! (화난 목소리로)
 그다음에는 차가 멈췄을 때 “내리세요”(화난 목소리)
 대중교통을 사용하는데 기사님이...
 짐이 두 개나 있으니깐 매일 수업을 나가니까 학교마다....
 짐이 커서 버스 안으로 못 들어가요.
 걸려서 짐이 걸리는데 기사님이 손님한테
 친절해 주지 못할망정
 “이건 뭐야” 하면서 쳐다보고(빈정거리는)
 가방이 걸려서(힘들어하는데 “아~하”(짜증 나는 소리로)
 그런 소리를 해서 저는 진짜 속상했어요.

한국은 한민족이잖아요.

베트남에는 54민족이 있어요.
 민족자랑이 너무 강해요.
 한국의 어르신들은 혼혈, 피가 섞이면 싫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20년 전)
 한국에는 외국인이 많지 않았어요.
 시장에 가서 베트남 사람을 만나 너무 반가워서
 우리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해요.
 지나가던 할머니가
 “아이고 짬뽕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진짜 그때 상처받았어요.
 우리가 한국에 거주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20년이 흘러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르신들이 계신
 노인정에 수업하러 가면
 어르신들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고 우리도 예쁘게 봐주세요.
 제 생각에는 한국 정부에서는 다문화 정책이 없었어요.
 그때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도 글 가르쳐주는 곳이 없었어요.
 음...오해는....처음에는 언어가 안 통해서 오해들이 많았어요.
 예전 한국 적응 초기 2년 동안 공장에서 일할 때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공장장님이 매일매일 점심 먹을 때, 한국 사람들과 같이
 점심을 먹어요.
 아침저녁만 따로 베트남 사람들과 먹었어요.
 점심때마다 공장장님이 문 앞에 서서 인사하고, 어르신들께는
 ‘맛있게 드세요.’하고 우리한테는 ‘마시게 머거.’라고 하는데
 그때는 언어를 이해 못 하니깐...
 그리고, 왜? 우리한테 욕을 할까?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욕하니깐. 마시게(새끼)라는 발음으로 오해 했어요.
 싫어해서.

왜냐하면? ‘X새끼’라고 욕하잖아요.
 그 말은 알아요. 맨날 듣던 말이니까
 ‘X새끼’하고, ‘맛있게 먹어’ 그 말들이 헛갈렸어요.
 그것을 욕으로 이해했어요.
 그때 공장장님이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나중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나서 이해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공장장님께 많이 미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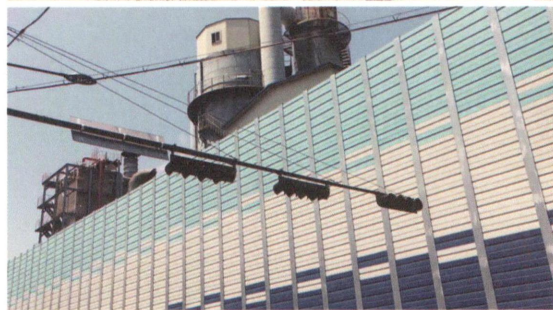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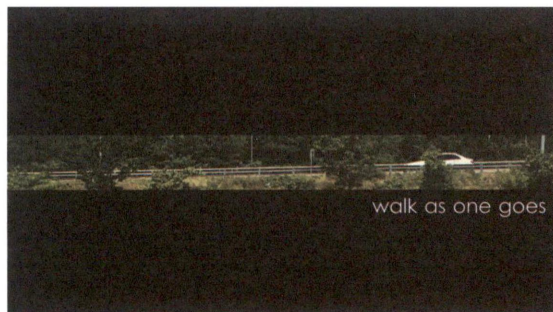
엄마와 아이 사이에 벽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제가 교육을 잘 못 했을까?
 문화가 다르니까.....
 한국 아이들하고 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가 조금 창피해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 국적을 따서
 아이를 생각해서 한국 이름으로 개명했어요.
 아이가 학교 입학해서 엄마 이름이 외국인 이름이면
 병균 있다고 놀릴까 봐 걱정돼서 개명했어요.
 지금은 딸 친구들이 집에 많이 놀러 와요.
 그리고 놀러 와서도 싫어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요즘 한국 학생들,
 우리가 학교에 가서 세계문화를 가르치니까
 아이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한국에 살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니,
 다음 세대에는 생각(편견과 오해)이 다 바뀌어 갈 것 같아요.

말하고 싶어도 어디에다 말할 곳이 없는데
 오늘처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마음이 후련해요.
 예전에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을 때
 사무실 안에는 다 과장님들이 한국 분들이라서
 매일 한국 음악만 틀어줘요.
 공장에서 큰 스피커로

그러다 보니 한국 음악만 계속 들으니깐
 그 노래....멜로디 재미있네....이 음악은....
 나중에 한국에 와서 찾아봤어요.
 그 노래 이름은....아니 제목을 알았어요.
 ‘사랑의 미로’

앞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을 나눔하면서
 한국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싶어요.
 감사해요(신짬언!)



도보여행을 하다, 싱글 채널, 00:04:05, 2019



여 백

p.4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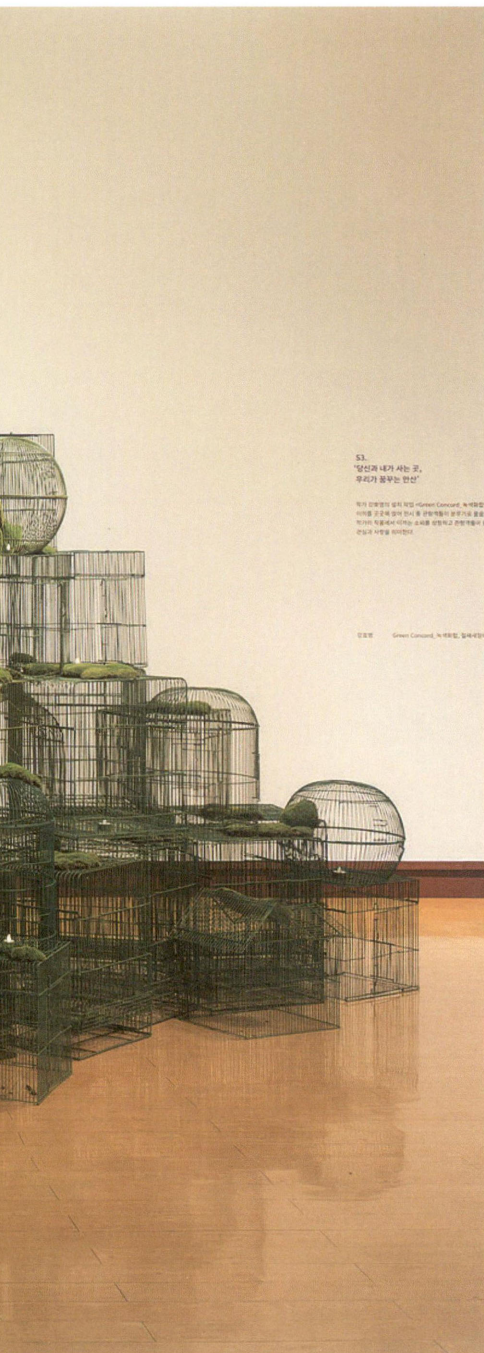
당신과
내가 사는 곳,
우리가
꿈꾸는 안산



안산이 가지는 산업화·공업화로 이룬 경제발전의 이면에 대해 지역이 스스로 고민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생태, 지형 그리고 섬, 그 안의 사람들을 주제로 한 작업을 통해 안산의 풍경을 마주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꿈꾸는 안산을 그려본다.



Green Concord_녹색화합, 철재새장에 채색, 이끼, 가변설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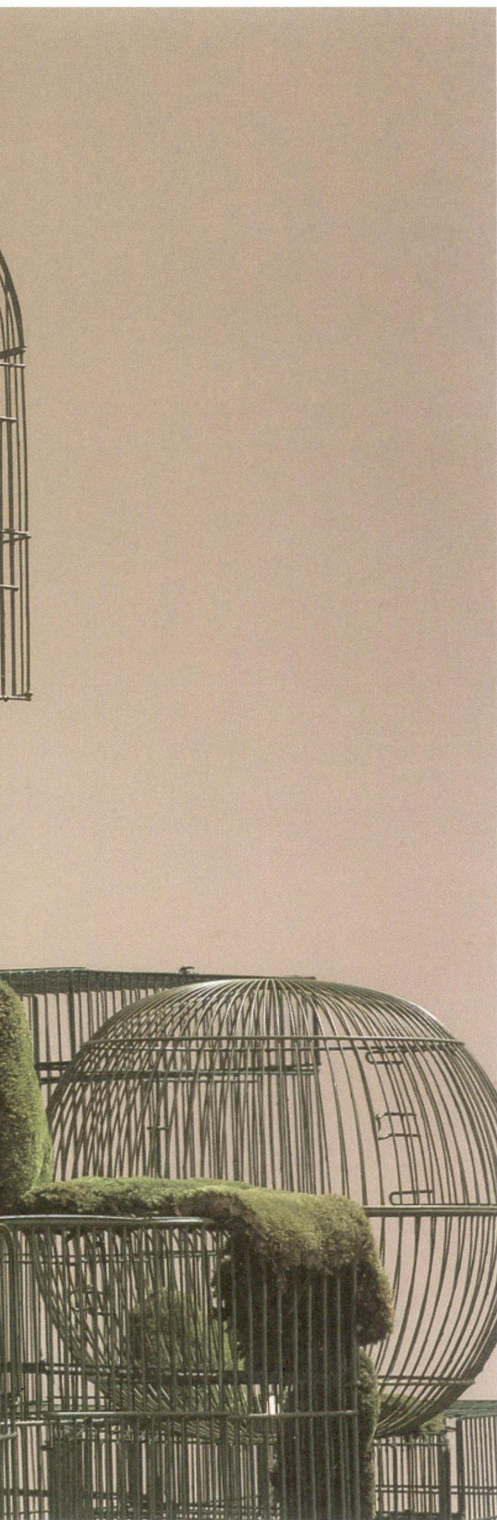


작가 강효명의 설치작업 <Green Concord_ 녹색 화합> 는 오랜 시간 동안 다문화 가정의 모여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가며 빚어지는 안산의 내면적인 사회문제를 긍정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안산의 지형적 형태와 접목한 작품이다.

2014년에 진행한 블루버드 프로젝트에 처음 등장한 이 올리브 그린색의 새장들은 희망과 위로를 서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시에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공간의 역할을 해왔다. 이런 은유적 해석을 담고 있는 새장들이 이번에는 안산의 공간에 설치되어 어쩌면 내재 되어 있을지 모르는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문제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로 풀어 봄으로써 더 밝고 건강한 안산의 미래를 염원하는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보기 좋게 쌓아 올린 새장은 나지막한 산의 형상을 띄고 있는 안산의 지형을 표현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새장 곳곳에 얹은 이끼는 소외되고 고립된 공간이나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이 이끼에 물을 뿌려주는 관객참여를 통해 소외된 곳에 관심과 돌봄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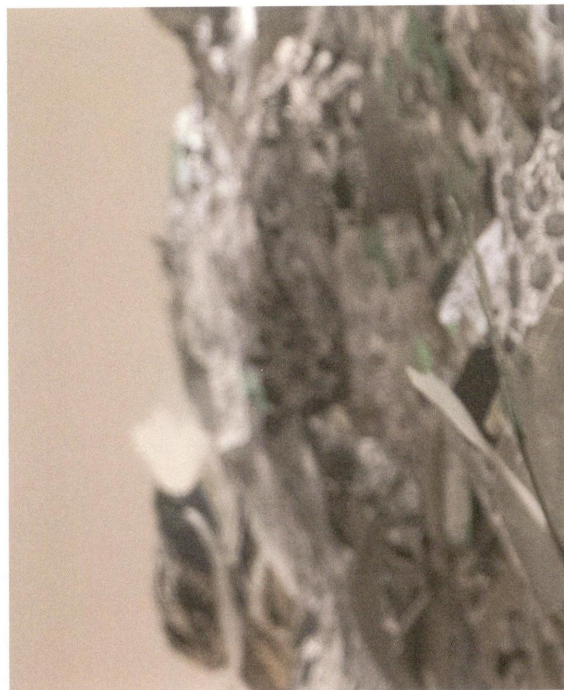
김 동 기

산업단지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안산의 섬, 그리고 자연환경, 높은 녹지율에 대한 이미지를 시각적, 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연출하고자 김동기 작가의 작업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현재 안산이 가지는 산업화·공업화로 이룬 경제발전의 이면에 대해 지역이 스스로 고민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생태, 지형 그리고 섬, 그 안의 사람들을 주제로 한 김동기 작가의 작품 <대부광산>을 통해 안산의 풍경을 마주한다.





대부광산 실크스크린, 커팅 Silkscreen, Cutting, 가변크기, 2019





여 백

p.54-55

이미지를 그려내고 나열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도시의 현재를 기록하는 전시를 기획할 것, 정해진 틀도 없고 필히 담아내야 할 것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오늘날 도시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내일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전시를 기획해야했다.

과거에 대한 기록물을 토대로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해던 기존의 틀을 깨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기획자들은 난제 앞에서 안산에 대한 도시 이미지를 그려내고, 단어로 나열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안산하면 떠오르는 것은
 ‘대부도, 그리고 크고 작은 섬’
 ‘시화방조제, 시화호, 조력발전소’
 ‘생태도시, 높은 녹지율’
 ‘공단, 산업단지 그리고 스마트 허브’
 ‘원곡동, 다문화특구’

깊은 고민 없이 단순하게 떠오르는 안산에 대한 이미지를 단어로 나열해보았다. 지금의 도시의 현상 또는 형태를 구성하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이었다.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던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 그 이면을 다시 고민하였다.

‘시화호의 오염’
 ‘환경오염’
 ‘노동인권문제’
 ‘외국인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원주민과의 거리’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 뒤를 자연스레 따라오는 다양한 사회문제, 환경문제 등 우리가 지금의 안산이 되기까지 겪었던 변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단어들로 기획서의 나머지 장을 채워갔다.

나열된 단어들 가운데 지금의 안산을 대표하는 이미지,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두가지 단어를 선택하였다.

‘섬 그리고 공단’

우리는 긍정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모두 안고 있는 이 상반된 단어가 현재 안산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전시에 담아보기로 하였다.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으로 쌓여간다. 우리는 어떻게 쌓을 것인가?

안산은 전형적인 반농반어 마을에서 반월공단 조성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쳐 지금의 도시 모습을 만들어냈다.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쌓여진 삶 위로 문화가 형성되었고 도시의 정체성이 자리를 잡았다.

산업발전의 어두운 이면인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는 섬과 공단이 공존한다. 다문화인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로 거듭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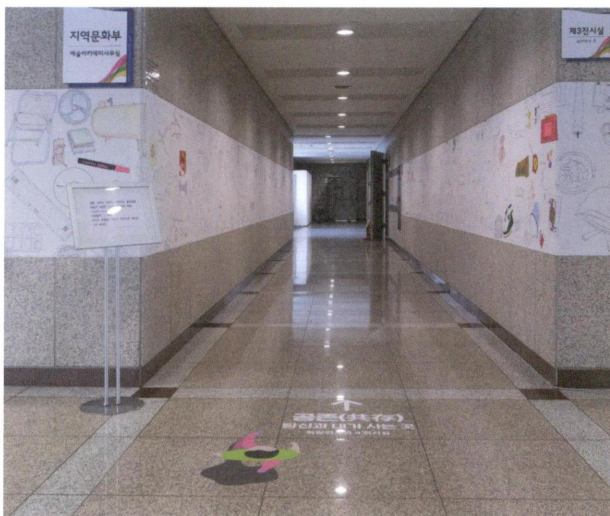
우리는 다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어떠한 문화를 정착시키는지 보다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도시가 변화해 가야하는지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자 과제이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 그 방향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 공단과 섬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었다.

도시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며 함께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안산의 현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표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시 연출에 있어서 유물을 통한 직접적인 이미지 전달, 사실의 전달을 넘어서 현대미술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롭게 나타내고 싶었다. 작가들이 가진 다양한 연출매체들을 활용하고, 그들이 표현하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도시의 이미지들을 다양한 기법과 형태로 나타내고 싶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가치들이 도시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스펙트럼에 의해 새롭게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의 고민들이 작가를 통해 다양한 결과로 도출되기를 원하였다.

전시를 통해 풀어낸 이야기들이 지금의 안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안산을 고민하고 공감하였던 기획자들과 전시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공존(共存) 당신과 내가 사는 곳

(가운뎃길 6102) 2019.09.05-09.15

2019. 0
안산문

공존(共存) 당신과 내가 사는 곳

모시는 글

생활문화공동체 네트워크 사업-미래유클리닉 in 안산 (공존-共存)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안산은 전통적인 반농반어 마을에서 1970년대 반월공단과 도시계획이
진행되면서 급격한 산업화를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정착하며 문화와 삶에 많은 변화를 겪었고,
지금의 안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겹겹이 쌓인 시간의 공간 안에서 '공단과 섬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오늘의 안산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전시를 통해 '당신과 내가 사는 지금 이 곳' 안산에서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안산'의 모습을 그려 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문화원 연합회장 영상역
안산문화원장 김봉식

전시작가

강효명	전시기간	2019. 9.5(목) - 9.15(일)
김동기	개막식	2019. 9.5(목) 14:00
김승택	관람시간	10:00 - 18:00
이재형	전시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동 화랑전시관 4전시실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고잔동 817)
	관람료	무료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안산문화원
	후원	경기도 · 경기도의회
	공동기획	안산문화원 · 안산어촌민속박물관 · 단원미술관

공존(共存) 당신과 내가 사는 곳

2019. 09. 05 - 09. 15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생활문화공동체 네트워크사업 (2019 미래유클리닉 in 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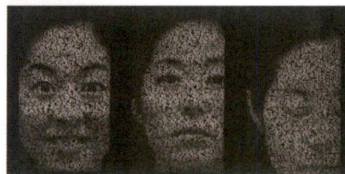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의 기록물을 토대로 역사를 그려왔다.
기록의 빈 공간은 기록을 간의 연결성에 의해 유추되기도 하고,
안간의 기록에 의존된 구술 자료를 통해 재구성되기도 한다. 개인과
집단의 기억에 의해 구성된 자료들은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를
통해 형성되고 지역의 정체성으로 연결시킨다. 다양한 방식에
의해 연구된 역사적 자료들과 생활 유물들은 어떤지 전시장
환경에 전시되고 있을 것이다. 아재의 물건이 내일의 유물이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시기 또한 점점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내일을 위해 무엇을 남겨야 할까?

"기록하고 연구할 것, 정리하고 보존할 것, 남기고 보존할 것"
그동안 기록에 의해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그려왔던 것처럼, 현재의 삶을 기록하고 연구하며, 다양한 형태로
정리하고 보존하고, 남기고 보존해야 할 것이다.

생활문화공동체 네트워크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생활문화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진행된다. '미래유클리닉'이라는 타이틀로 해마다 진행한 전시는
올해 '안산'에서 진행한다.

섬과 공단이 공존하는 도시 안산은 반농반어가 가능한
지리적 요건 덕분에 풍요로운 민속 문화를 형성하여 천년이라는
긴 역사를 거쳐 왔다.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이었던 안산지역은
1970년대 들어 반월공단 건설로 인해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공업 도시로 변화해 왔다. 마을에서 도시로 급격히
변화하여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다양한
세대와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지금과 동떨어진 마을이 되었다. 이번 전시는 통통 하나
아닌 다채로운 문화들이 융화되어 있는 안산에 대해 정리하고
내일을 위한 이야기들을 구성하여, 동시대 지역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자 한다. 전시는 현재 안산의 대표적인
이미지이자 할 수 있는 '공단(산업단지)과 섬-섬', 이 상반된
이미지의 공존에 대한 기록이다.

S1.
당신에게
안산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재형 face of city-편산, 가변설치, 2019

안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술작품을
제작하고 온라인상에서 사진이 가능한 안산의
이미지(단어)를 다수 수집하여 분석한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도출되는 안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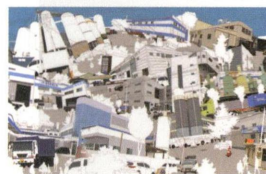
이재형 작가의 <Face of City>는 소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감성적 표정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집단 감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얼굴의 표정 변화를 통해 보여주고 그 변화의
근거를 텍스트로 언어들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찾아낸다. <Face of City-안산>은 안산 지역 내에서
추출한 SMS(Social Network Service) 데이터들을 머신
러닝을 통해 감정단어로 분류하고 수치화시켜 이를 표정의
변화와 연결시키는 정보 시각화 프로젝트이다.
실시간 문자 데이터들은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 내고
이는 '표정'이라는 오묘한 감성적 표현으로 시각화된다.

S2.
공단과 섬 사이
안산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한국인을 인식 속에 자리 잡힌 안산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무엇일까? 과거 반월공단에
한때 반월스카이트리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비롯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 삶과 문화
조각한 내용을 영상 및 생활 자료로 보여준다.

작가 김승택은 '오해와 편견'이라는 다채로운
영상을 통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었던 안산과
안산의 다문화 인구들의 이미지와 문화 이야기를
풀어낸다. 사건 사고로 인해 한국인들은 외국인
근로자 혹은 이주외국인들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으며, 이소통의 어려움
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시선으로 얼룩져버렸다.
이해 감응을 위한 시선으로 얼룩져버렸다.
인더블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
다가가길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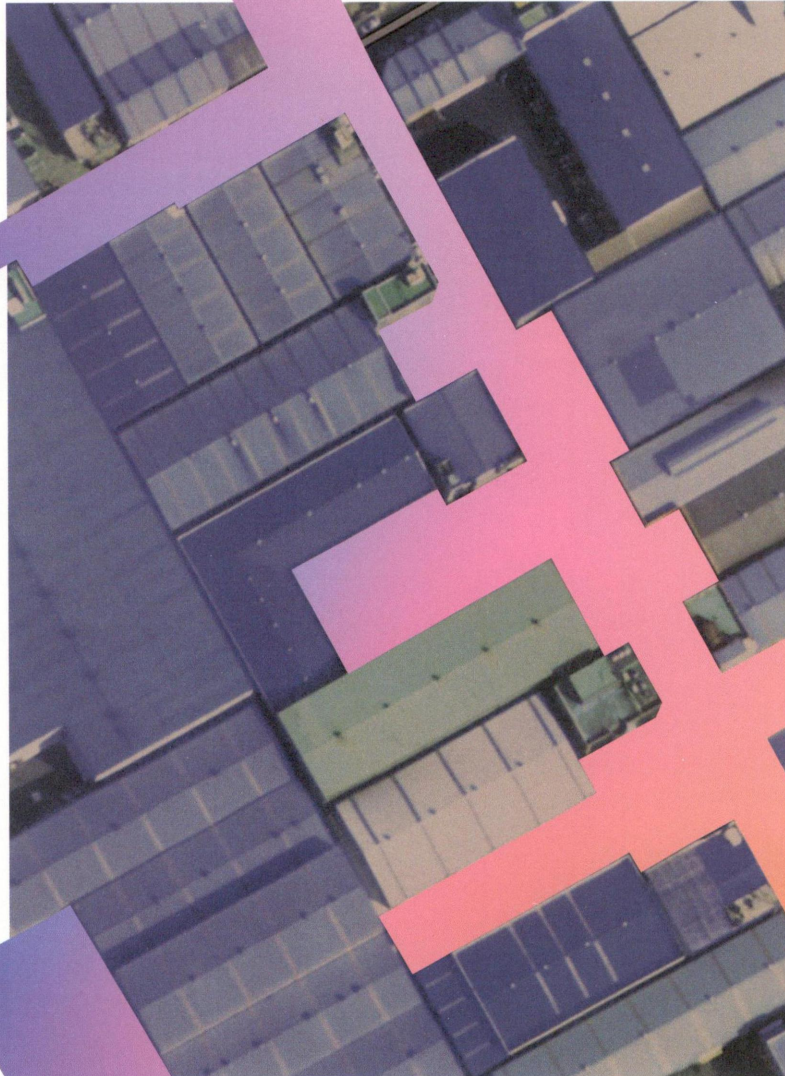
김승택 kombinat_kombinat, 120x200cm, 2019



공존(共存)

당신과 내가 사는 곳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 <2019 미래유물전 in 안산>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안산문화원 후원: 경기도 · 경기도의회

2019. 09. 05 - 09. 15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 [2019 미래유물전 in 안산]

공존(共存) - 당신과 내가 사는 곳

전시기간 : 2019.09.05.(목) ~ 09.15.(일)

전시작가 : 강효명, 김동기, 김승택, 이재형

전시장소 :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전시동 화랑전시관 4전시실

개막식 : 2019.09.05.(목) 14:00

관람료 : 무료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안산문화원

기획 : 안산문화원, 안산도시공사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안산문화재단 단원미술관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안산시, 안산시의회

협력기관 : 안산산업사박물관, 사회적기업 문화세상 고리

디자인 : 디자인곰

ISBN: 979-11-89046-08-8

* 본 도록은 2019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3060



9 791189 046088
ISBN 979-11-89046-08-8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안산문화원

후원 : 경기도 · 경기도의회 · 안산시 · 안산시의회